

새로운 책.....

▲석가여래행적승(무기 지음)=석가여래 일대기를 시의 형식을 빌려 찬송하고, 그 속에 해설을 곁들인 <석가여래행적승>에 동국역경원장 율원스님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거해서 토(吐)를 붙였다.<불학, 9천원>

▲마음의 비밀(성운 지음)=대만 불광사 화주 성운스님의 윤회와 인연, 운명에 대한 강연내용과 서울 구룡사 점 안법회에서 한국불자들에게 설한 법어를 묶었다. 91년 발행된 것을 수정증보했다.<도방, 6천원>

▲문화(상·하, 김영무 지음)=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문화의 거름될 일을 주제로 한 구도소설. 작가는 사소하게 마

던 것을 청나라 때의 과소정 등이 2천여 항목, 600쪽 12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편찬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TV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송나라의 청렴한 관리 포종 즉 포청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용도공안(龍圖公案)>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책이다. '취보리'라는 제목이 '술을 사랑하는 깨달음'이라는 뜻을 지녔듯이 이 책에서 도제는

중국 도제스님 일대기 '醉菩提' 전5권 첫 번역

“세상사 초월한 活佛이야기”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특히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관청과 관리들 골탕먹이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중국 송나라 때의 전설적인 승려 도제(道濟, 1148~1209). 그의 일대기를 전 5권 분량의 소설로 엮은 <취보리(醉菩提)>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불지사 펴냄.

세상사를 초월한 신승(神僧)일 뿐만 아니라 강호협객(江湖俠客)의 풍모를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사실 그의 삶이 그랬다. 그의 행장을 기록한 '정자사지(淨慈寺誌)'에 따르면, 그는 광기가 있고 속세에 몸을 담고 때로는 아이들과 어울려 곤두박질을 하며 장난을 하기도 했다. 불문의 계율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해 그가 출가한 영은사의 다른 스



◇<취보리>는 인간사회의 허위성을 질타하고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의미심장한 문학작품으로 평가된다.

중생 고통·번뇌 대신 짙어진 자비실천 수행자 삶 사실묘사

남들은 그를 미친 중 즉 재전(濟顛)이라 낮춰 불렀다. 그러나 속세의 사람들은 오히려 착한 사람을 공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등 자비행의 화신인 재공을 활불(活佛)이라 칭송하며 무척이나 좋아했다. 이번에 나온 <취보리>는 '현 조선 활보하니 결음마다 연꽃피네' 등 각권의 부제가 암시하듯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대신 짚어낸 인간적인 면모의 재공스님을 그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생제도와 정의구현을 몸소 실천한 활불이야기로 읽힌다. 군사반란과 부정부패로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어지러운 시국에 일침을 가하는 이 소설은 나아가 불교와 수행자를 다스림 생각해 해준다. 계선원 전 북경대학 동방언

어학부학장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취보리>를 "인간사회의 허위성과 세태의 냉혹함을 질타함으로써 정기(正義)와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의미심장한 문학작품"이라며 "이 작품이 중국에서 8백년 이상이나 사회 각계층 인사들의 주목을 받는 원인으로 바로 여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번역은 북경대학 동방언문계 양오진교수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유학중인 중국 연태대학 한국학연구소 김희씨가 했다.

'천년의 고독...' 발간 티베트 자연·역사 소개



달라이 라마의 조국으로 널리 알려진 티베트의 실상을 소개한 <천년의 고독 티베트(글 나루)>가 나왔다. 저자는 티베트연구소 부이사장인 권귀훈씨(전 동대부고교장).

이 책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32일 동안 세계의 마지막 오지 티베트를 탐사, 그곳의 자연과 역사, 이색종교, 소수 민족들의 낯선 풍습 등을 저자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풍물 사진 1백여장을 곁들여 티베트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다. 또 고유의 밀교 신앙에 대해 비교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서구인에 의해 알려진 티베트의 또다른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바라밀씩뜸...' 펴내 각광스님, 불교전통치료법

도심포교화동을 펼치고 있는 각광스님(보문포교원장)이 불교의 전통속담치료를 법한 <바라밀씩뜸 건강치료요법>(바라밀건강연구회 펴냄)을 펴냈다. 각광스님은 "병고를 구제하는 의학과 중생을 재난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불교는 무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론과 실재를 체계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코자 책으로 펴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립
2	도기부신에대기원을 제해나	서 압	동 지
3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4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상바	정신세계사
5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정사
6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관
7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8	소설 등산불	석 용 산	문화수첩
9	길 그리고 길	도 법	선우도량
10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	마 하 시	경 서 원

규원문의: (02)737-0695

비로 잡습니다. 본지 제57호(12월 13일자) 8면 '정신과의사의 문화재 사랑' 제하 기사중 '최치원'은 '서영수'로, 제55호(11월 20일자) 8면 '부처님유성...' 제하 기사중 '김동화'는 '고익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명사추천



지명 '허공의 몸을 찾아서'

며칠 전에 모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에서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불교의 대중화를 새삼 실감했다. 그런데 이것이 <一體有心調>로 쓰인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一切心造).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에 추천하는 불서는 불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 교양서로서도 필독의 양서임을 서두에 명시한다.

(果)의 동시성과 수행과 성불의 동질성을 말한다. 다음으로 좀 길게 인용하려는 바는 간편하고 쉬운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이해를 돕는 대목이라 하겠다. 방대한 <법화경>의 복잡한 구조를 저자는 명쾌하게 분석함으로써 <경>의 줄기를 추려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준다.

<법화경> 28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연결된 것은 두번째 <방편품>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덟개의 품(원시팔품)이다. 제목이 시적(詩的)이라고는 했지만 내용은 산문의 특색이라 할 명징성(明證性)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러 경전의 난삽한 구석을 두루 시원하게 끊어주는 매우 오묘한 불교세계의 안내자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신 동 춘 (시인·한양대 교수)

불교요체 현대적 감각 재조명

법화경 분석 명쾌...신행 길잡이

근 초심자의 신행(信行)의 길잡이, 문필가의 소재 모색 등등, 불교에 관해서라면 각계 각층의 미진수(微塵數) 중생의 속마음을 꿰나 깊이 파고드는 박력을 가진 희귀한 저술이다. 이것은 내게 이 책을 관한 동료교수의 의견을 옮기는 말이기도 하다. 구구한 설명이나 부연은 줄이고 저자에게 직접 귀를 기울이자.

법을 전하는 네 단계 절차는 정설(正說), 영해(諍解), 술성(述成), 수기(授記)이다. <원시팔품>에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고백, 부처님의 인증, 그리고 성불여언이라는 네 단계의 절차가 세 번 주기로 반복된다. (p.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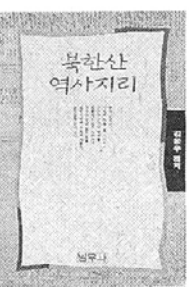
이것은 <방편품>의 이른바 삼주살법(三周說法)의 정의이다. <허공의 몸을 찾아서>를 진득하게 읽어 나가노라면 전후 문맥에서 어렵게 느껴지던 문제점들이 저절로 풀려나가기 마련이다. 불경은 불교인의 전유물이기 이전에 우리의 국민적 유산이다. 장구한 시간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심전심(心心傳心)이라고는 하지만 그 의미의 전달이 자칫 흐려지는 듯한 요즈음 이 책은 불교의 요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한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이 <경>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법화경>의 위상을 드러내려는 하다면 그 명칭을 부연하는 마당에서 과와 열매를 들어 인(因)과 과

북한산 역사지리

김윤우 편저

북한산은 서울 근교의 등산하기 좋은 산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산이 불교문화의 보고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북한산 역사지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산 주변의 사찰과 사자를 '북한산지'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 기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책에서 사적기와 조선시대 각종문집을 통해 확인한 사지만도 중흥사 용암



화
제
의
책

'불교문화 보고' 역사적 복원 주장

사 보광사 등 11곳에 이른 다. 또 부왕사 원각사 서암사 인수사 장의사 도성암 신철사 향림사 등 이름만 전하는 사찰의 사적기를 일일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북한산에 진국사 등 5개 사찰을 창건하는 등

크게 불사를 일으킨 성능스님의 사적비라도 건립하길 발원한다며 북한산의 역사적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산의 역사지리 개관, 조선시대의 삼각산과 북한산 성기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범우사, 9천원)

관세음보살 일대기

김현도 편저

지혜와 자비, 신통력과 자재방편을 갖추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관세음보살은 불교역사나 교리에서 관념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다. <대성 관세음보살 일대기 상·하>에서는 관세음보살이 보살수행을 통해 자비구세의 정신을 실현하는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관세음보



관념적 존재아닌 실존인물 추정

살은 서기전 250년경 중부 아시아 파밀고원 동쪽에 위치한 흉림국 묘장왕의 셋째 공주 묘선이라는 것. 묘선은 사도(邪道)를 신봉하는 부왕 때문에 무수한 박해와 극형까지 받게 되었으나, 초인적 위신력으로 위기를 극

복하고 마침내 곤륜산에 들어가 수도하여 대보살도를 성취했다. 저자는 관음제도본원진경(觀音濟度本願眞經)과 그밖의 사적 고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상양, 각권 6천5백원>

불은가득, 법향가득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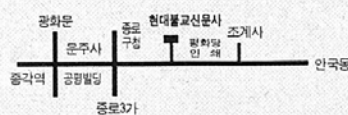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에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았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지세희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